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형성과 사리티 공소에 관한 연구

최증인*

- I. 서론
- II. 용인 서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 1. 용인 서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
 - 2. 서리의 행정구역 변화
 - 3. 서리의 마을과 지명
- III.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발전
 - 1. 용인 서리 지역 천주교 전래
 - 2.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관련 구전(口傳)
 - 3.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와 신자 증가
- IV. 사리티 공소의 강당
 - 1. 1898년 강당 건축
 - 2. 1978년 강당 개축
 - 3. 사리티 공소 강당의 역사적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는 여러 박해와 이를 피난하는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신자 공동체의 형성과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박해와 피난의 여정 속에서 천주교가 용인 서리 지역에 언제 누구에 의해 전래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현존

* 수원교구 일월 본당 주임신부, 건축공학 박사

하는 수원교구의 몇 안 되는 공소 강당 중 1898년에 신축되고 1978년에 개축되어 오늘에 이르는 사리티 공소 강당이 용인 서리 지역 천주교 전파와 맺는 연관성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신앙형성과 천주교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사리티 공소 강당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용인 서리 지역은 지형적으로는 산들로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는 용인·이천·화성·안성·진천 등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박해를 피해 살아야 했던 신앙인들에게는 마을에 흐르는 물을 통해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구고, 화전(火田) 생활 및 가마와 숯을 만들어 경제적인 생계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용인 서리 지역에서는 1844년 더우골에서 태어난 정덕구(야고보)와 그 가족, 1840년경 사리티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공과 그 가족, 더우골에 살았고 1866년 순교한 윤자호(바오로)와 정 필립보, 1866년 병인박해 이후 사리티로 이주한 권위와 그 일가·임혁준(요셉)·조면(바오로) 등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 그들로 시작된 서리 지역의 천주교 신앙공동체는 1885년에 생긴 더우골 ‘안터 공소’가 기초가 되어 새터, 사리티, 조이골, 석바탕이, 승밭들 등의 7개 공소가 있었으며, 가장 많았던 때는 동시에 6개가 있었다. 신자가 가장 많았던 1912~1913년에는 404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신앙공동체가 되었다. 1898년 사리티 공소 강당의 건축은 더 활발한 전교를 위한 구심점이 되었다.

용인 서리 지역 공소는 1920년부터 더우골 안터 공소와 사리티 공소 두 곳으로 재편되면서 1923~1924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신자 감소 현상을 보인다. 신자 수는 1922~1923년 334명, 1929~1930년 162명, 1936년에 135명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신자 수 감소는 일제가 1910년 이후 실시한 토지조사령, 인삼·담배·소금에 대한 전매, 산미증식계획 등의 경제 수탈 정책에 기인한 곤궁한 생활과 1922년 7월과 8월에 걸쳐 한 달간 내린 비로 인한 흉수 피해의 결과이다. 용인 서리 지역 신자들은 전답(田畓)의 파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하였고, 그 결과 급격한 신자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박해 이후 신앙생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개항기의 천주교 종교 건축은 일반적으로 장방형이었고 당시 유교의 남녀유별 사상의 영향으

로 성당이나 공소 강당은 가운데 벽이나 장막, 휘장, 발 등을 설치하여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리티 공소 강당은 1898년 당시 민가의 건축 형태인 ‘ㄱ자형’의 흙벽 초가로 건축하면서도 공간적으로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였다. 사리티 공소 강당은 ‘ㄱ자형’ 평면으로 건축함으로써 제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는 서로 다른 방향에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되도록 배치한 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사리티 공소 강당은 남녀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공간을 나누는 ‘닫힘(폐쇄)’의 형태를 지니지만, 나뉘진 공간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봉헌 제단을 향함으로써 ‘열림(개방)’의 자세를 지니는 ‘ㄱ자형’ 평면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80년이 된 흙벽 초가를 1978년 개축하면서도 초기 강당이 지녔던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초가가 있던 같은 자리와 같은 규모 그리고 ‘ㄱ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목조와가(木造瓦家)로 개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인 서리 지역은 도시화와 고령화로 신앙인이 줄고 있으며 강당을 찾는 이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용인 서리 지역에 살았던 초기 신자들이 머물던 사리티 공소 강당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신앙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공동체의 정신을 되새기고, 박해를 피해 사리티와 더우골에 살았던 순교자 후손들의 신앙 가치를 드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용인, 서리, 사리티, 더우골, 공소, 강당, ㄱ자형 공소

I. 서론

한국 천주교회는 조선 후기에 서양 학문을 접한 이벽(李穰, 요한 세례자)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 계층의 서학(西學)과 천주학(天主學)을 탐구하면서 점차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싹트게 된 신앙은 자신의 믿음 성장과 실천에 그치지 않고 가족, 혈연, 집안 내에 함께 살던 이들, 학문을 같이하던 동문, 이웃 등에게 학문적 논리나 믿음에 대한 실천으로 전교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베드로)이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뒤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 아직 미사를 봉헌할 신부가 없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한 가성직제도¹⁾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 중국 교회에 신부를 요청하였다. 그 결실로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중국인 주문모(야고보) 신부가 1794년 영입되었으나, 이미 1791년 진산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에 대한 신해박해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문모 신부는 드러나게 활동하지 못하고 숨어지내며 사목 활동을 하였다.

신자들은 비록 미사를 봉헌하지 못해도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같은 믿음을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하였고, 기도하는 장소로 특정인의 집이나 공소가 되는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였다. 공소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지만 가까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자가 많지 않아도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교우촌(敎友村)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초창기 한국 천주교 공소에 대

1) 가성직제도는 성직자가 없던 초창기 한국 천주교회 신자의 교리 지식 부족으로 신자들끼리 주교, 신부 역할을 나누어 행했다.

해 페레올 주교(1845년 조선 입국, 1853년 선종)는 1850년 11월 5일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때까지 대목구장은 아무런 거주지가 없습니다. 거주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 대목구의 지역들을 헤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수치를 말해 본다면 40개 이상의 소규모 주거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가 봉헌되고 성사들이 집전되는 공소들은 올해에 185개였습니다. 서로 아주 가까이 인접한 공소들도 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공소들도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걸어서 가야 하는 공소의 수는 적습니다. … 모두 산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목 방문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 신자 수는 일만 일천 수백 명을 헤아립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고, 소수의 수공업자가 있으며, 어떤 이들은 양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극도로 가난하고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본당이 없고, 소성당도 경당도 없습니다. 신자들의 초막 안에서 (미사를 비롯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²⁾라고 하였다.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는 여러 박해와 이를 피난하는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신자 공동체의 형성과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박해와 피난의 여정 속에서 천주교가 용인 서리 지역에 언제 누구에 의해 전래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수원교구의 몇 안 되는 공소 강당 중 1898년에 신축되고 1978년에 개축되어 오늘에 이르는 사리티 공소 강당이 용인 서리 지역 천주교 전파와 맺는 연관성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신앙형성과 천주교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사리티 공소 강당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천주교의 용인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서리 지역에 관한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용인성당에서 1981년 조성희 편저로 간행

2) 페레올 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567~571쪽.

된 『용인천주교회사』³⁾와 2013년 발간한 『용인성당 50년사』⁴⁾에서 역사적 사실을 구전되고 내용이 있으나, 두 문헌에서 용인 서리 지역에 관한 내용은 사리티 공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계와 그 내용의 가치 있는 증거 또는 사료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실에 대한 논란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밖에도 천주교 수원교구가 2017년 발간한 『수원교구 50년사-I. 교구사』⁵⁾, 2018년 ‘용인 천주교 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개최된 『2018 용인 천주교 유적 학술대회』⁶⁾, 『용인지역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⁷⁾ 등이 있다. 이 문헌들은 초창기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 현황을 수원교구와 용인의 인물 및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문서, 문헌, 연구 등을 정리하거나 고찰한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문헌들의 근원적인 자료는 천주교에서 발행되거나 지자체 등에서 발행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주교에서 발행된 문헌은 한국의 천주교 초기부터 병인박해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⁸⁾가 대표적인데, 그 내용은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의 편지와 문서를 통해 선교 활동에 대한 상황 보고 형식으로 쓰였다. 서리 지역의 천주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수원교구 50년사 자료집 4』(이하, 교세통계표)⁹⁾ 『뫼텔 주교 일기』¹⁰⁾ 『강

3) 조성희 편저, 『용인천주교회사』, 용인천주교회사편찬위원회, 1981.

4) 용인성당50년사편찬위원회, 『용인성당 50년사』, 용인성당, 2013.

5) 수원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구 50년사-I. 교구사』, 천주교 수원교구, 2017.

6) 용인시가 주관하여 용인 천주교 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개최한 학술대회이다.

7) 이석원, 『용인지역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8)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중·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1981.

9) 수원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수원교구 50년사 자료집 4』, 천주교 수원교구, 2019. : 1876년 제1국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은 파괴되었던 조선교회 재건과 정확한 교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881~1882년부터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목활동을 보고하는 ‘연말보고서’와 교세통계표를 작성해 대목구장 주교에게 제출하였다. 통계작성의 기준은 앞선 연도의 5월 1일부터 당해 연도의 5월 1일까지로 하였다. 1933년 말에 교세통계표 체제가 개편되어 당해연도 1월~12월까지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공소별로 작성된 교세통계표는 1936년(1937년 초에 작성)까지만 하였고, 이후에는 분당 단위로 작성되었다. 교세통계표 중 1904~1909년, 1924~1929년, 1938~1952년까지의 자료는 전쟁 등의 사정으로 분실되었다.

10) 뫼텔 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 주교 일기 1~8』,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2008.

도영 마르코 신부 서한』¹¹⁾ 등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교회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주교 수원교구 시성시복추진위원회에서 2011년 행한 ‘시성시복을 위한 심포지엄’¹²⁾ 등을 통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임성빈의 「신유박해 이후 교회재건기의 지도자 권기인 요한에 대한 연구」¹³⁾ 등도 있었다. 그 밖에도 관련 자료로 신앙인의 삶과 순교를 살펴볼 수 있는 『사학징의(邪學懲義)』 『벽위편(關衛編)』 『순조실록』, 용인의 역사·지리·지명에 대한 『용인의 역사지리』 『내고장 용인 지명·지지(地名·地誌)』 『이동면지』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I장에서 용인 서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III장에서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발전, VI장에서 서리 지역의 천주교 유적인 사리티 공소 강당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공소 관련 자료는 용인 서리 지역의 첫 공소인 더우골 안터 공소가 시작된 1885년부터 공소별 교세통계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1936년까지의 공소와 신자 증감을 범위로 하였다.

II. 용인 서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1. 용인 서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

서리는 지형적으로 북쪽의 부아산(402.7m), 동쪽의 함박산(550.5m) 능릉산(189m) 뒷굴산(147m) 골안산(191m), 남쪽의 함봉산(306m) 보

11) 강도영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음, 『강도영 마르코 신부 서한집』, 천주교 수원교구 미래내성지, 2016.

12) 천주교 수원교구 시성시복추진위원회,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후손들의 천주신앙 1~2』, 하상출판사, 2011.

13) 임성빈, 「신유박해 이후 교회 재건기의 지도 권기인 요한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8,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

실봉(215m), 서쪽의 무봉산(360.2m)이 높지는 않으나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 북쪽의 부아산과 서쪽의 무봉산과 함봉산을 각각 발원지로 하여 서리교에서 합류해 동쪽으로 흐르는 송전천은 서리의 더우골과 사리티 두 방향에서 흐르고 있다. 서리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에 의해 외부와 차단된 형세를 지니고 있지만,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송전천에 의해서 낮은 산 사이로 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 길은 용인(양지)이나 이천 등에서 화성(오산이나 기흥)으로 오가는 상인들에게 짧은 거리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요긴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1] 조선후기 용인현 지도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소장-

용인 서리 지역은 지형적으로는 산들로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는 용인·이천·화성·안성·진천 등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박해를 피해 살아야 했던 신앙인들에게는 마을에 흐르는 물을 통해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구고, 화전(火田) 생활 및 가마와 숯을 만들어 경제적인 생계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2. 서리의 행정구역 변화

고려말 이성계는 정치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여 1390년 개경 주변의 경기(京畿)를 좌·우도로 분리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하여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여 1395년 경기의 행정구역에 광주, 수원, 여주 등을 합쳐 좌·우도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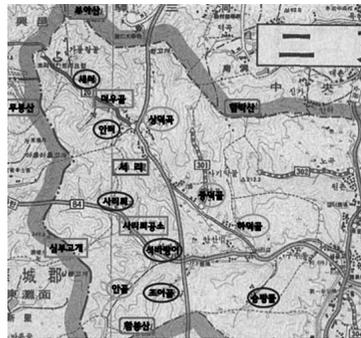
1413년 군현을 일부 조정하고, 1414년 경기 좌·우도를 합쳐 경기라고 하면서 군현(郡縣)을 통폐합하였다. 이 영향으로 용인지역은 용구현

(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합하면서 용(龍)자와 인(仁)를 따서 용인현(龍仁縣)으로 하여 수원진(水原鎭)에 부속하였다가 남양부(南陽府)에 예속하였다. 용인현은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龍仁郡)으로 명칭이 바뀌며, 전국 23부제(府制) 시행으로 충주부(忠州府)에 속하였다가 1896년 13도제(道制) 시행으로 다시 경기도에 속하였다. 용인현의 치소(治所)는 현 기흥구 언남동 구읍내에 있었다.¹⁴⁾

용인현은 16면(面)을 설치하였고, 현재의 용인시 이동면 지역은 상동촌면(上東村面)과 하동촌면(下東村面)에 속한다.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면 상동촌면에는 덕의동, 묵동, 천동이 속했고, 1912년 발간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묵동, 덕성동, 천동, 원촌, 서동으로 동리 수가 증가하였다.¹⁵⁾ 1789년 있던 덕의동이 1912년 사라지면서 서동(西洞)과 합쳐졌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상반, 하반, 덕골, 불당골, 지곡(紙谷) 등을 합쳐 상동면의 서쪽에 있어서 서리(西里)가 되었다.¹⁶⁾

3. 서리의 마을과 지명

서리의 지명은 마을의 두 갈래로 흐르다 만나는 송전천을 중심으로 나뉘었다. 먼저 북쪽의 부아산 자락에서 발원되어 남쪽으로 흐르는 송전천을 따라 북쪽부터 상덕(上德, 上德谷), 중덕(中德, 中德谷), 하덕(下德, 下德谷)이 있다. 서쪽의 무봉산 자락에서



〈그림-2〉 용인 서리 지역과 지명

14)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이동면지』, 용인시, 2007, 99~100쪽.

15) 위의 책, pp.101~102.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사총서6』, 용인시, 2000, 159~160쪽. ; ‘호구총수’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내용을 재인용.

16)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내고장 용인 지명·지지(地名·地誌)』, 용인시, 2001, 149쪽.

발원되어 흐르는 송전천을 따라 형성된 골짜기의 위쪽에 상반(上盤, 上盤谷, 사리덕), 아래쪽을 하반(下盤, 下盤谷, 석바탕이)이 있고, 함봉산 북동쪽이며 하반 남쪽에 위치하여 종이를 만들었다는 조이골(紙谷)이 있다. 불당골(佛堂谷, 승방뜰)은 하반 동남쪽의 보실봉 남쪽에 위치하였다.

함봉산 북서쪽에서 발원한 송전천이 흐르는 골짜기는 하반에서 동탄 신리로 넘어가는 길에 ‘안골’이 있고 그 길의 정상에 ‘심부고개’가 있다. 안골에는 박해 때 죽은 불쌍한 이들을 위한 ‘공동묘지’, ‘신부터’, ‘붉은 고개’의 유물과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표-1〉 용인 서리 지역 마을과 지명

지 명			설 명
지 명	마을 단위	달리 불린 명칭	
덕골 (德谷)	상덕(上德)	상덕곡	북쪽의 무봉산 자락에서 발원되어 마을의 남쪽으로 흐르는 송전천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상덕, 중덕, 하덕 마을
	중덕(中德)	중덕곡	
	하덕(下德)	하덕곡	
서리골	상반(上盤)	상반곡, 사리치, 사리덕, 사리덕	서쪽의 무봉산 자락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송전천을 따라 형성된 골짜기의 위쪽은 상반, 아래쪽은 하반 마을
	하반(下盤)	하반곡, 석바탕이	
조이골		지곡(紙谷)	함봉산 북동쪽이며 하반 남쪽에 위치하여 종이를 만들
불당골		승방뜰	하반 동남쪽의 보실봉 남쪽에 위치하며 신라 효공왕 때 세운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골짜기가 들어섬
안터			상덕마을 서쪽에 있으며 제대골 입구
새터			하고개 서북쪽에 새로 된 마을
사기막골(砂器幕谷)			중덕 마을 동쪽에 있으며 사기그릇을 구워 팔면서 형성된 마을
사기동치		사기동터	상반마을 동쪽에 있는 가마터
심부고개		신부고개	하반곡에서 서쪽의 화성시 동탄면 신리 바른골로 넘어가는 고개
아흔아홉고개		절고개	상덕마을에서 화성시 동탄면 중리로 넘어가는 고개
사리치고개			상반곡 서쪽에 있는 고개
하고개		학교개	상덕마을에서 용인 역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III.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발전

1. 용인 서리 지역 천주교 전래

이벽은 천주교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여 1784년 봄부터 약 1년간 서울의 중언계층에 속하는 의관과 역관, 경기도 광주 마재의 정약전·정약용 형제, 당대 명망가인 양근 한강개의 권일신에게 전교하였다. 그리고 1784년 초겨울 이벽(요한 세례자),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약용(요한) 등이 이승훈(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권철신(암브로시오)이 동생 권일신의 권유로 입교하면서 권씨 집안 가족들이 남녀노소 모두 입교하였고 집안의 하인들도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남한강 주변의 정씨, 권씨 집안을 중심으로 신앙이 시작되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맥락으로 포천¹⁷⁾, 충주¹⁸⁾, 내포(內浦)¹⁹⁾, 전주²⁰⁾ 등에 전파되어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791년 전라도 진산(현재 충청남도 금산)에서 윤지충(바오로), 권상연(야고보)의 폐제분주(廢祭焚主)²¹⁾ 사건이 발단되어 최초의 신해박해(1791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여파로 권일신은 투옥과 심문을 통해 예산으로 유배지가 결정되고,²²⁾ 심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주문모 신

17) 포천에 권일신의 외종사촌 홍교만(洪敎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이 살았다.

18) 충주에 권철신의 처남 남필용(南必容), 권철신의 사위 이재섭(李載燮), 권철신의 제자 이국승(李國昇, 바오로), 권득신(권일신의 아우)의 장인 이기연(李箕延)이 살았다.

19) 내포에 권철신의 제자 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 곤자가)이 살았다. 내포는 '내륙의 포구'로 서해로 연결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금의 서산, 예산, 홍성, 태안, 당진 등이다.

20) 전주에 권철신의 제자 유향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이 살았다.

21)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움.

22) 『수원교구 50년사- I 교구사』, 50쪽.; 권일신의 투옥, 심문, 선고에 대해서 1791년 11월 3일(음력) 체포

부의 조선 입국이 조정에 알려져 1795년 6월 27일 체포령(을묘박해)이 내려졌다. 1791년과 1795년 사건을 계기로 남한강 주변의 신자들은 천주교에 대한 반감과 압박을 피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는 이들도 늘었다. 그러나 1801년 정순왕후 김씨의 ‘사학 금지 전교’ 반포로 천주교 박해(신유박해)가 극심해지면서 신앙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²³⁾

권철신, 권일신 등 5형제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다섯 집안이 한 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집안에 서당을 두어 자녀들을 수업시키면서 함께 살았다.²⁴⁾ 주변의 많은 이들로부터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와 인간적인 덕망에 대한 존경 그리고 형제와 집안사람들의 관계 등이 탁월했던 가문은 1791년 권일신의 죽음, 1801년 권철신과 그의 양자 권상문(33세)²⁵⁾의 죽음, 권일신의 장남 권상학(41세 전후)의 신안 임자도로 유배, 1802년 권제신의 장남 권상술(40세 전후)이 투옥, 그리고 양근 5형제 가문의 형제와 조카, 부인, 노복(奴僕)들까지 투옥되거나 귀양을 간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권철신의 여종(婢女) ‘구애(九愛)’가 강원도 고성 땅 간성(杆城)²⁶⁾, 행랑에 살던 여종 ‘순덕(順德)’이 경상도 함안 땅 칠원(漆原)으로 유배²⁷⁾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박해로 인해 1802년 양근 권씨 집안에 살아남은 17세 이상은 둘째 권

령, 11월 8일경(음력) 형조에 투옥되어 7차까지 심문, 11월 13일(음력) 제주도로 유배형이 선고, 15일 잘못을 뉘우치는 ‘회오문(悔悟文)’을 작성, 16일 유배지를 충청도 예산으로 변경하였다.

23) 위의 책, 46~55쪽, 60~61쪽.

24) 여진천, 「권철신, 권일신 후손들의 천주신앙」, 『시성시복을 위한 심포지움, 천주교 수원교구 시성시복추진위원회, 2011, 118~119쪽. ; 정약용, 「녹암 권철신 묘지명」, 『다산시문집』, 77쪽.

25) 권상문(權相問, 세바스티아노, 1769~1801)은 양근 권암의 셋째 아들 권일신의 3남으로 양근에서 태어나 큰아버지 권철신의 양자(養子)로 들어간다. 본 연구는 권일신의 자녀로 가계도에 포함시켰다.

26) 이원희, 「『포도청등록』에 나타난 병인박해기 강원지역 인물 고찰」, 부산교회사연구소 학술연구발표 제78회, 2013.3, 3쪽. ; 1801년 천주교 탄압 기록인 『사학징의(邪學懲義)』에 강원지역에서 잡혔거나 강원지역으로 유배 온 사람들 가운데 권철신 집안의 여종 ‘구애’가 기록되어 있다.

27) 여진천,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 특성」, 『교회사 연구』 42, 2013.12, 26쪽.

제신의 장남 권상술의 아들 권의(20세 전후)와 차남 권상립(35세), 셋째 권일신의 장남 권상학의 아들 권후(20세 전후)와 차남 권상벽(權相關, 39세), 딸 권 테레사(18세), 막내 권익신(52세 전후)과 아들 권상벽(權相壁, 30세 전후)에 불과할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다.²⁸⁾ 권씨 집안의 남자들이 투옥과 순교하는 과정에서 남은 가족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아녀자들과 함께 양근에서 50여리 떨어진 용문 덕동(현재,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골로 피신²⁹⁾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식구였는지 알 수는 없다고 전해진다. 다만 권일신의 딸 권테레사는 오빠들이 순교하거나 유배를 떠나자 의지할 곳이 없어 오빠 권상문의 장남인 어린 조카 권겸(당시 11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³⁰⁾

양근 권씨 일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매개로 천주교가 전파되었으나 1791년(신해박해) 1795년(을묘박해) 1801년(신유박해)의 박해를 겪으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돌보던 이들 중의 신자들은 신변의 위협과 불안감,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활 터전을 떠났다. 그들 중에는 서울로 가기도 하였으나, 심산유곡(深山幽谷)을 향한 이들 중에 일부가 용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천주교의 용인 지역 전래가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신앙공동체가 전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801년 이전부터 용인에 신자가 살고 있었음을 백안나(1818년생)의 시복재판 증언과 신태보의 「옥중수기」³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안나는 남편 박후재(1799~1839)에 대해 “용인(龍仁) 사람으로서

28) 임성빈, 위의 논문, 62쪽.

29) 위의 논문, 83쪽. 양근 권씨 일가의 용문 피난에 관한 내용은 가전전승(家傳傳承)이다.

3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신앙 선조』, 천주교 수원교구, 2011, 139쪽.; 『수원교구 50년사- I 교구사』, 55쪽.

31) 신태보는 1838년 사스탕(J. Chastan) 신부의 요청으로 「옥중수기」를 기록하였다.

태중교우(胎中敎友)³²⁾로서 어려서 대세(代洗)하였으나 보례(補禮)는 중년에 하옵고, 그 부친의 사정은 모르오나 모친은 타당히 수계(守誠)하다가 기해년 정월에 선종하고 (박후재) 요한은 기미년생(1799년) 이온테 41세에 치명하옵고”³³⁾라고 증언하였다. 또 박후재의 부친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³⁴⁾ 이를 통해 박후재는 용인에 사는 천주교 신자인 부모의 가정에서 1779년에 태어나 어려서 대세를 받았다는 점에서 1799년 이전부터 용인에 천주교 신자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박후재는 부친이 순교한 1801년 이후 서울로 이주하였다.

신태보는 이천 동산 밑(현재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출신으로 1839년 약 70세의 나이에 순교하였는데, 『옥중수기』에서 “박해(1801년 신유박해)가 마침내 가라앉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서로 뿔뿔이 헤어져 있었고, 모든 경문책을 잃었다. 어떻게 신자 본분을 지킬 방법이 있겠는가. 나는 우연히 몇몇 순교자 집안의 유족들이 용인 지방에서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나이 먹은 여인들과 겨우 아이티가 가신 몇몇 소년들뿐이었는데, 모두 합하여 서로 친척 간이 되는 세 집안이었다. … 나는 거기에서 40리 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8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서로 찾아다녔다. … 이 사람들은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었다. … 우리는 양쪽이 모두 외교인들 가운데 살고 있었고, … 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40리 길을 밤에 몰래 걸어야 했다. … 얼마 지나지 않아서 … 우리는 함께 이사를 하여 다른 곳에 가서 외딴 조그마한 마을을 이루어 살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나에겐 아들 하나와 딸 하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다섯 집을 합치면 40명 이상의 식구가 되었고 … 8일 동안을 무척 고생스러

32) 부모가 신자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3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천주교 수원교구, 2011, 385~387쪽;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신앙 선조』, 44쪽.; 박후재의 아내 백안나가 29회차(1883년 6월 13일) 시복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다.

34) 『한국천주교회사(상)』, 606~607쪽.; “변득중과 염색업자 김경서 그리고 1839년에 순교한 박명관(厚載)의 아버지 박(朴)이라는 분 등, 세 교우가 순교한 날짜도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운 길을 걸어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³⁵⁾라고 전한다. 신태보의 「옥중수기」를 통해 용인에 1801년(신유박해) 직후 나이 먹은 여인들과 겨우 아이티가 가신 몇몇 소년들로 이루어진 세 집안의 신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남자 어른은 없고,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1795년 입국해 1801년 순교한 주문모 신부를 만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옥중수기」의 세 집안은 1795년 주문모 신부와 관련한 체포령으로 어른 남자들이 죽어간 남한강 주변의 신자들로서 살던 지역의 반감과 압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 용인 지역으로 이주(移住)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용인을 떠나 1802년 초에 강원도로 이주하였다.

이처럼 용인 지역에는 1799~1801년에 박후재 가족이나 신태보의 「옥중수기」에 나오는 세 집안의 천주교 신자가 살았으나, 아직 박해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로 정착(定着)하지 못하고 타지로 이주하였다.

1801년 이후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 하기 적합한 산골로 이주와 왕래가 잦아지면서 화전 등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인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선교사는 교우촌을 잇는 산길로 사목 방문을 하였다. 용인 지역의 신앙공동체는 1820년을 전후해서 충청도로 이어지는 산골에 위치한 ‘양지 은이’(현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와 ‘용인 굴암’(현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에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1830~1840년대에 굴암을 중심으로 인근에 교우촌이 집중되어 병목골, 한덕골, 덕우골(더우골, 삼배울³⁶⁾, 하동촌(이동읍 남서부) 지역까지 신자가 분포되어 신앙 성장과 전교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³⁷⁾

35) 『한국천주교회사(중)』, 11~14쪽.

36) 『수원교구 50년사- I 교구사』, 98쪽.; 이석원, 위의 논문, 261~262쪽.; ‘삼배울’의 현재 위치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표시하였는데, ‘서리’가 아닌 서리 남쪽에 자리한 ‘덕성리’이다.

37) 『수원교구 50년사- I 교구사』, 86~93쪽.; 이석원, 위의 논문, 252~256쪽.

(1) 정덕구(야고보)와 서리 지역 연교의 순교자

병인박해 순교자 가운데 세 명이 용인 서리의 더우골에서 거주하였다. ‘하느님의 종’³⁸⁾ 정덕구(야고보, 1844~1867)는 ‘더우골’의 신자 가정에서 1844년 태어났다. 그는 이후 박해를 피해 용인 덕성리의 삼배울, 국수봉, 굴암, 절골 등으로 다니다 충청도 공주 국실 점촌에서 옹기를 굽던 사람으로 23세에 순교하였다.³⁹⁾ 그의 가족이 모두 천주교 신자로 생각되지만 언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⁴⁰⁾ 김대건 신부가 1845년 말 은이 상품이로 내려와 1846년 부활절 전까지 양지 터골·웅다라니·용인 굴암(추정) 공소를 방문하며 성사를 집전하였는데, 용인 ‘굴암’ 공소 주변에 신자가 거주한 마을로 ‘더우골’이 확인된다.⁴¹⁾ 이로써 더우골과 삼배울에서 살았던 정덕구의 집안도 김대건 신부의 굴암 공소 방문 때 성사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필립보는 ‘더우골’에 살다가 1866년 체포되어 1867년 1월 순교하였다.⁴²⁾ 윤자호(바오로, 1809년~1868년)는 충청도 노성(현재 논산시 노성면)에서 태어나 강경 놀미, 충주 등으로 이사하다 충주에서 부친과 입교해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이사하다가 용인 ‘더우골’에서도 살았다. 윤자호는 다블뤼 주교를 도와 두루 다니며 신자를 돌보기도 하였는데 1868년 순교하였다.⁴³⁾ 용인 서리 지역에는 <표-2>

38)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승인을 숙고하려고 선종한 신앙인의 일생과 업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시성 절차의 네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되어 순교했다거나 덕행에 뛰어난 모범을 보였다는 판결이 나면 ‘가경자’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시성성에서 가경자의 기적을 확인한 다음에는 시복됨과 더불어 ‘복자(여성형은 복녀)’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는 시성이 있는데, 이것은 ‘성인’(여성형은 성녀)의 호칭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39)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명한 신앙 선조』, 237쪽.

40) 위의 책, 237쪽.; 주교회의 시성시복주교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273쪽.

41) 『수원교구 50년사- I 교구사』, 93쪽.

42)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명한 신앙 선조』, 224쪽.

43) 위의 책, 272~273쪽.

의 용인 서리 지역 연고의 순교자들을 통해 정덕구(야고보)가 태어난 1844년에 이미 천주교 신자가 살았고, 정필립보가 체포된 1866년에도 신자가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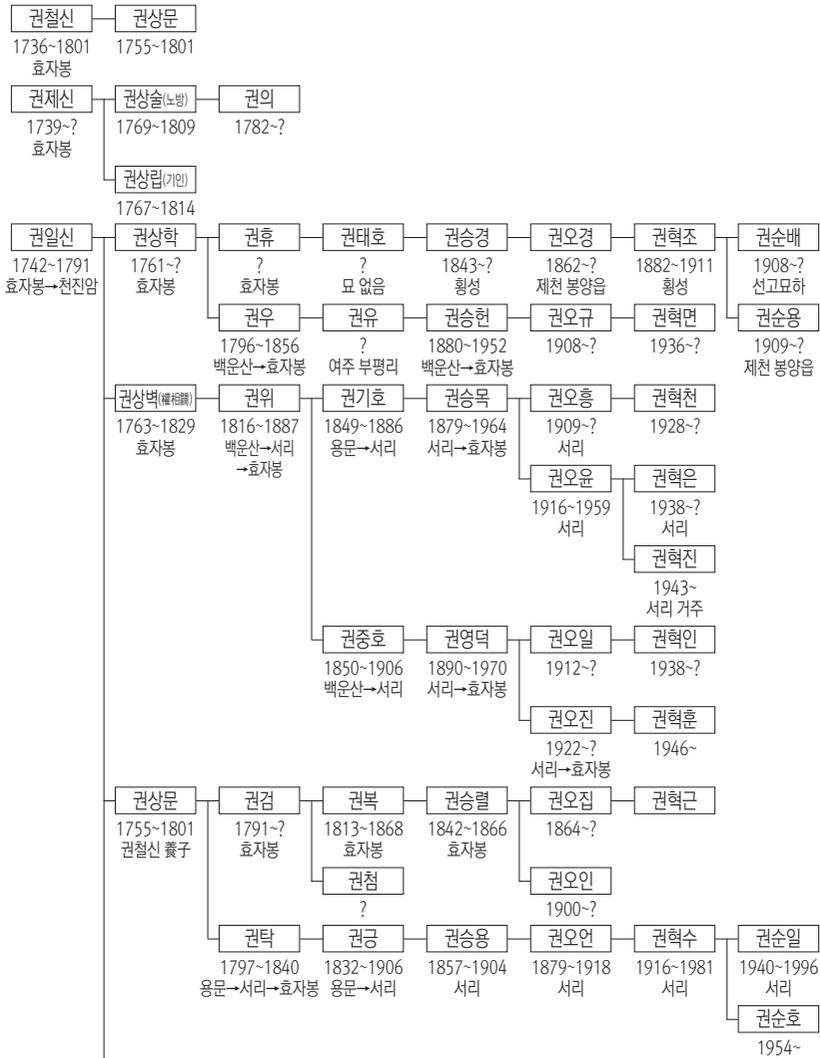
〈표-2〉 용인 서리 지역 연고의 순교자

성명/세례명	연고 내용	성별	교회 직분	직업	순교일(양력)	나이	순교 형태	출생지	거주지	순교 지역	전거
윤자호 바로	거주	남	회장	머슴, 상인	1868.9.4	60	교수	충청 노성	충청 강경 놀미, 충주, 공주, 광천 독바위, 대흥, 용인 더우골, 충청 공주 관불산	수원 화성	〈병인치명사적〉 16권 76-90쪽, 23권 87-89쪽 〈치명일기〉 360번
정덕구 야고보	출생	남		옹기장이	1867.12.	23	옥사	용인 더우골	경기 용인 삼배울, 국수봉, 굴암, 절골, 충청 공주 국실	안성 죽산 관아	〈병인치명사적〉 24권 20-24쪽, 21권 54쪽, 21권 69쪽
정 필립보	거주	남			1867.1(음)		교수	경기 용인 덕골(더우골)		화성 남양 관아	〈병인치명사적〉 22권 122쪽

(2) 권일신 후손의 이주

권씨 집안이 사리티에 정착게 된 배경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권일신과 권철신의 죽음으로 양근의 터전이 해체되면서이다. 권씨 집안의 족보, 가전전승, 〈표-3〉의 가계도에 나타난 못자리 등을 통해 권일신의 후손이 양근을 떠나 용문 덕동으로 피신하였으나, 권상문의 차남인 권탁(權倬, 1797~1840)이 기해박해로 죽으면서 다시 피난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들의 피난지를 유추하면 권궁(1832~1906)이 아버지 권탁의 죽음으로 용문 덕동에서 용인 사리티(서리 상반), 권상학의 장남 권휴는 강원도 횡성(현재 횡성군 서원면 이대정(梨大亭) 풍수원성당 인근), 차남 권우는 강원도 백운산 섬암(현재 원주시 판부면)으로 피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권상벽의 후손은 원주 백운산으로 피난했으나, 1866년 병인박해 이후 권탁의 후손이 먼저 정착해 살던 사리티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

〈표-3〉 권철신 형제의 가계도 및 묘 위치



묘 위치	
효자봉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백운산	: 원주군 백운산 섬암(두꺼비바위)(현재 원주시 판부면)
황 성	: 황성군 서원면 이목정(梨木亭) (현재 황성군 서원면 풍수원성당 인근)
용 문	: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서 리	: 용인 사리퇴(현재 용인시 이동읍 서리)

[Provider: 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Sunday, June 20, 2021 9:44 PM

진다. 따라서 용인 서리 지역의 사리티에는 권일신의 둘째 권상벽과 셋째 권상문 후손이 1840년 이후 정착해 오늘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서리에 살다가 묘를 쓴 것은 <표-3>에서 권상문의 자손인 권승용(1857~1904), 권상벽의 자손인 권승목(1897~1964)과 권영덕(1890~1970)부터이고 그들의 선조는 용문(권궁, 권기호)이나 원주 백운산(권위, 권중호)에서 서리로 이장(移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승용과 부친 권궁의 사망 시점이 각각 1904년과 1906년이라는 점에서 권궁의 묘가 용문에서 서리로 이장되긴 하였으나, 권궁은 서리 사리티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권승목(1879~1964, 요셉)은 사리티공소의 초대 회장 조면이 1906년 타계하자 그의 뒤를 이어 2대 공소회장으로 미리내본당의 강도영 신부에 의해 1906년 10월 26일 임명되어 1951년 6월 15일까지 활동하였다. <표-3>에서 권승목의 조부 권위와 부친 권기호의 묘가 원주와 용문에서 각각 용인 서리로 이장되었으나, 병인박해가 있었던 1866년 이후 용인 서리 사리티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권승목의 사촌인 권영덕(1890~1970)의 부친 권중호도 묘가 백운산에서 용인 서리로 이장되었으나 1866년 이후 사리티에 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용인 서리에는 권승용의 증손주인 권순일(1940~1996, 루카)의 처 이정임(1943生, 막달레나)과 권승목의 손자 권혁진(1943生, 리카르도)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들의 증언으로는 용인 서리에 언제, 누구 때부터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권일신의 자손들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1840년경부터 용인 서리 지역의 사리티로 이주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임혁준(요셉)의 낙향

임혁준은 1827년 충주에서 태어났고, 친구 김기호(1824~1903, 요

한)⁴⁴⁾의 도움을 받아 베르뇌 주교⁴⁵⁾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 이후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용인 사리티 ‘안골’로 낙향하여 여생을 살았다고 전한다. 사리티에 교우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포졸이 종종 들이닥치기도 했으나, 임혁준이 거주한 이후로 포졸이 오지 않아 안심하고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4) 조면(바오로)의 이주

조일(趙駟)은 실학자들과 교류하며 천주교에 관심을 지니다가 세례받고 충청도 진천 배티(현재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낙향하였다. 조일의 손자인 조면(?~1906)은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1860년대 진천 일대에서 장사(壯士)로 유명하였으나 1866년 병인박해로 형 조강(趙綱)과 동생 조종(趙綜)이 죽산 감옥에 투옥되자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신자가 살던 용인 사리티로 이주하였다고 사리티에 사는 자손인 조전우(1933生, 베르나르도) 등을 통해 전하고 있다. 조면은 이후 사리티 공소의 초대 공소 회장으로 1898년 3월 18일부터 1906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면서 사리티 공소 강당을 신축하고 용인 서리 지역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하였다.

용인 서리 지역에 천주교인이 살았던 것은 1844년 더우골에서 태어나 1866년 병인박해로 순교한 정덕구(야고보)와 그 가족을 문헌을 통해

44) 김기호(요한)는 30세 때 서울의 홍봉주(洪鳳周)를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배워 베르뇌(Berneux, S. F.) 주교에게 세례받고 10여 년간 그의 복사와 명도회장(明道會長) 전교 회장을 하며 전교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드게트(Deguette) 신부와 강원도 산골에 숨어 박해를 모면한 뒤 리델(Ridel, F. C.) 주교, 블랑(Blanc, M.) 주교, 뮈텔(Mutel, G. C. M.) 주교 등 3대에 걸쳐 교회에 헌신하였다. 1901년 70세의 노령으로 경기도 하우현(下牛峴)에 은거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1903년 12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는 문답식 교리서인 『소원신종(溯源慎終)』, 자신의 전교 활동을 회고한 『봉교자술(奉教自述)』, 그리고 『교령요의(敎靈要義)』 등이 있다.

45) 베르뇌 주교(1814~1866)는 1845년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856년 서울에 입국하여 선교하다 1866년 순교하였다.

확인할 수 있다. 사리티로 이주한 권공과 그 일가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으나 권씨 집안 가계도와 못자리를 통해 기해박해가 지난 1840년 경부터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병인박해로 체포되어 순교한 윤자호(바오로)와 정필립보, 병인박해 이후 이주한 임혁준(요셉)과 조면(바오로), 그리고 권승목 일가 등이 용인 서리 지역에 터를 잡고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더우골과 사리티 공소가 시작되었다.

2.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 관련 구전(口傳)

용인 서리 지역과 관련된 자료는 1981년 발간된 『용인천주교회사』, 2013년 발간된 『용인성당 50년사』, 2001년 발간된 『내교장 용인 지명·지지(地名·地誌)』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의 지명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이 구전(口傳)되고 있다.

① ‘심부고개’

신부가 사목하기 위해 넘나들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② ‘신부터’

신부터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화전을 파던 농민에 의해 성물(聖物)이 발견되었고 … 병인년 박해 때 페레올 고 주교가 피신하여 살던 곳”⁴⁶⁾으로,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3~4세대가 살고 있었던 집터 … 이곳에 밭을 일구던 농부가 성서와 묵주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여 교우 집에 전달해준 사실도 있었으나 유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손에서 분실되었다.”⁴⁷⁾고 전한다.

46) 『용인천주교회사』, 84쪽.

47) 『용인성당 50년사』, 93쪽.

③ ‘붉은고개’

붉은고개는 “어느 신부님이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밤에 성사를 주고 돌아오는 신부님이 호환(虎患)을 당해 피를 흘린”⁴⁸⁾ 장소다. 그런가 하면 “포졸들이 교우 집을 습격하였으나 젊은이들은 다 도망치고 늙은이와 병든자들만 감옥으로 압송하는 도중에 행보가 어려운 사람들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자 그대로 방면하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책임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극악한 포졸들이 중도에서 임의로 돌려 쳐 죽이므로 그들이 흘린 피가 고갯마루 턱을 흥건히 적시어 오랜 세월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⁴⁹⁾ 붉은고개로 불리고 있다.

④ ‘공동묘지’

사리토크공소의 초대 회장인 조면(바오로)이 “박해 때 불쌍하게 죽은이들을 안장(安葬)하기 위해 ‘안골’에 교우 공동묘지를 마련하여 이곳에 장사케 하였다.”⁵⁰⁾라고 전한다.

⑤ 페레올(Ferréol, 1808~1853) 주교와 관련한 구전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신부터’ : 병인년 박해 때 페레올 주교가 피신하여 살던 장소⁵¹⁾
- 페레올 주교가 사리토크에서 피난한 사실이 있으며...⁵²⁾
- 조면(바오로) 회장이 사리토크에 정착한 이후에 그곳으로 피난 온 주교 신부들의 보호역(保護役)을 하였는데 그가 페레올 주교였다고 임분도 회장이 증언하였다.⁵³⁾

48) 『용인천주교회사』, 84쪽.

49) 『용인성당 50년사』, 94쪽.

50) 『용인천주교회사』, 221쪽.

51) 위의 책, 84쪽.

52) 위의 책, 139쪽.

53) 위의 책, 221쪽.

- “한국천주교회사에도 고 페레올 주교께서 이곳(사리티)으로 피신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하였다.”⁵⁴⁾라고 전한다.

①~④의 4가지는 지명, ⑤는 페레올 주교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㉑. 용인 서리 지역에 구전되는 ‘심부고개’ ‘신부터’ ‘붉은고개’ ‘공동묘지’의 장소가 하반에서 심부고개를 향하는 골짜기인 ‘안골’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이므로 지형적으로 박해를 피해 몸을 숨겨 생활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지리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가 될 수 있어서 여러 구전이 있으나 그에 따른 물증 등이 부족하다.

㉒. 주교나 신부와 연관되었으며, 특히 페레올 주교와 관련된 것이 많다.

언급된 구전이 사리티의 천주교와 관련한 장소나 인물에 관한 내용이지만 다음과 같은 시간적 장소적 모순으로 인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첫째, 구전에 ‘페레올 주교가 1866년 병인년 박해 때 피신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는 조선에 1845년 입국해 사목 활동을 하다가 1853년 선종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즉 ‘조면(바오로) 회장이 페레올 주교를 돌보았다고 전한다는 임분도 회장의 증언’은 같은 책⁵⁵⁾에서 조면이 1860년대에 충청도 진천에서 살았다는 점에서 1853년 선종한 페레올 주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페레올 주교가 사목하는 동안 사리티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여타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한국천주교회사에도 고 페레올 주교께서 이곳(사리티)으로 피

54) 『용인성당 50년사』, 93쪽.

55) 『용인천주교회사』, 140쪽.

신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하였다.”라는 것은 ‘앵베르 주교 22번 서한’⁵⁶⁾ ‘페레올 주교 30번 서한’⁵⁷⁾과 상이하다. 1838년 조선 서울에서 작성한 ‘앵베르 주교 22번 서한’에서 “조선을 위해서도 새 주보를 뽑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즉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조선교회 후보 축일로 지내도록 명하면서 파공과 미사 참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포교성성에서 이 새 주보의 선정을 추진⁵⁸⁾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⁵⁹⁾하였다. ‘페레올 주교 30번 서한’에서 “교황님의 결정으로 조선교회는 7년 전에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특별한 후보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저희는 신심단체 하나를 신설하여 조선교회를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심께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외딴곳에 사는 어느 열심한 새 신자 가정집을 선택하여 그곳에 모인 몇 명의 신자를 회원으로 하는 ‘성모성심회(聖母誠心會)’⁶⁰⁾를 정식으로 창설했습니다. … 조선 분회 설립 장소는 수리치골이라는 계곡에 있는 어느 초라한 오두막이요 설립일은 1846년 11월 2일입니다.”⁶¹⁾ 결국 페레올 주교가 사리틱에서 한국 천주교회를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했다고 하지만, 이미 1838년 앵베르 주교에 의해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조선교회 후보 축일로 지내도록 교황청에 청했다. 이로써 인물, 시간, 장소, 내용이 구전과 사실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용인 서리 지역과 관련된 『용인천주교회사』와 『용인성

56) ‘앵베르 주교 22번 서한’은 1838년 12월 1일 조선 서울에서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것이다.

57) ‘페레올 주교 30번 서한’은 ‘성모성심회(聖母誠心會)’ 창설자 데주네트(Desgenettes) 신부에게 1846년 11월 6일 보낸 것이다.

58) 포교성성에서는 1841년 8월 22일 성 요셉을 함께 모시는 조건으로 앵베르 주교의 청원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조선교회는 성 요셉과 함께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동 주보로 모시게 되었다.

59) 앵베르 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앵베르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1, 377쪽.

60) 『한국천주교회사(하)』, 136쪽. : 한국에서는 ‘성모성심회’로 불리고 있으나, 정확히는 ‘무염성모성심회(無染聖母誠心會)’이다.

61) 페레올 주교, 위의 책, 467~469쪽. ; 『한국천주교회사(하)』, 136~137쪽.

당 50년사』에서 전하는 구전의 명확한 증언자나 기록은 물론, 사료가 될 물증 등이 없다. 또 그에 따른 인물과 지명에 연관된 사건의 시간적인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신앙을 위해 박해를 피난하는 과정의 내용을 담은 장소 인물에 관한 것이지만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는 현저히 낮다.

3.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와 신자 증가

(1) 관할 본당과 공소 신설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는 왕림 본당이 신설된 것보다 앞서 푸아넬 신부에 의해 1885년부터 더우골 ‘안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888년 왕림 본당이 신설되어 그 관할이 되고, 1895년 미리내 본당, 1927년 양지 본당, 1929년 다시 미리내 본당의 관할이 되었다<표-4>. 이후 용인 본당을 거쳐 현재는 천리 본당에 속하였다.

<표-4> 용인 서리 지역 공소의 관할 본당과 신설/폐쇄⁶²⁾

기간별 관할 본당		공소		공소 신설 / 폐지
기 간	신부 또는 본당	더우골	안터	1885년 /
1885~1887	푸아넬 신부 사목		새터	1887년 / 1920년
1887~1888	두세 신부 사목	사리티	사리티	1892년 /
1888~1895	왕림 본당		사리티 2	1896년 / 1898년
1895~1924	미리내 본당	조이골		1893년 / 1899년
1927~1929	양지 본당	석바탕이		1894년 / 1899년
1929~1936	미리내 본당	승방들(불당골)		1898년 / 1913년

오늘날 사리티 공소는 더우골과 사리티를 포함한 용인 서리 지역의

62) 수원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수원교구 50년사 자료집 4』, 천주교 수원교구, 2019.;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에서 해당 내용을 선정해 정리하였다.

천주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사리티 공소에서 사용하던 강당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내 문헌은 물론이고 용인시에서 발간한 지역 관련 문헌에서도 1888년 신설된 갓등이 본당의 관할 공소를 나열하면서 ‘사리티 공소-74명’으로 명시하고 있다.⁶³⁾ 그러나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당시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는 ‘사리티 공소’가 아니라 앞서 1885년 설정된 ‘Te oui kol(더우골) 공소’였다. 그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은 1981년 저술된 『용인천주교회사』에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라는 의미에서 강당이 있는 ‘사리티 공소’로 명기되었고, 그 이후 저술된 『내고장 용인 지명·지지』 등도 ‘사리티 공소’라고 소개하면서 『용인천주교회사』의 내용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는 그만큼 사리티 공소가 용인 서리 지역의 천주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 및 신자의 수와 관련한 자료는 경기도지역을 담당할 신부나 본당 신부가 사목하면서 제출한 교세통계표에서 더우골의 안터 공소가 신설된 1885년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용인 서리는 사리티 공소 강당을 중심으로 반경 약 2.5Km 안의 함박산, 무봉산, 함봉산, 뒷굴산으로 둘러싸인 협소한 지역이지만, 1885~1936년까지 51년간 7개 공소가 신설·폐지·통합하였다. 공소의 표기는 기록한 신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5>와 같이 1885년부터 1898년까지 ‘Te oui kol’(더우골) ‘Sai the’(새터) ‘Sa ri kol’(사리골) ‘Tyo eui kol’(조이골) ‘Syek pa tang’(석바탕이) ‘Seung pang teul’(승방뜰) ‘Sa ri hteui 2’(사리티 2)의 7개 공소가 신설되었다. 1898~1920년까지 5개 공소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1896~1899년에 가장 많은 경우 6개 공소가 있었으나, 1920년부터 더우골 안터와 사리티 공소 2개만 남는다.

63) 『용인천주교회사』, 147쪽.; 『내고장 용인 지명·지지(地名·地誌)』, 107쪽.; 『용인성당 50년사』, 66~67쪽.; 갓등이 본당이 설정된 1888년에 ‘사리티 공소-74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당시 교세통계표에는 더우골의 ‘안터-76명, 새터-74명’이다. 사리티 공소는 1892년에서야 신설되었다.

〈표-5〉 용인 서리 지역의 연도별 공소 및 신자 현황⁶⁴⁾

본당	신부	년도	더우골		사리틱		조이골	석바탕이	승방틀	계	
			안터	새터	사리틱	사리틱 2					
경기도 지역	푸아넬	1885-1886	45							45	
		1886-1887	94							94	
	두세	1887-1888	44	43						87	
갯등이	앙드레	1888-1889	76	74						150	
		1889-1890	50	52						102	
	알릭스	1890-1891	112							112	
		1891-1892	124							124	
		1892-1893	85		43					128	
		1893-1894	54	62	44		17			177	
		1894-1895	54	45	55		32	41		227	
	빌렘	1895-1896	64	55	64			35		218	
	미리내	강도영	1896-1897	73	55	30	43	29	32		262
			1897-1898	67	52	31	50	32	36		268
1898-1899			69	51	61(강당신축)		34	54	38		307
1899-1900			55	50	155						260
1900-1901			65	50	157						272
1901-1902			58	55	157						270
1902-1903			47	59	179				99		384
1903-1904			53	48	156				82		339
1909-1910			61	57	159						277
1910-1911			59	188	78						325
1911-1912			62	69	167						298
1912-1913			69	63	166				106		404
1913-1914			66	68	171						305
1914-1915			68	77	171						316
1915-1916			100	66	173						339
1916-1917			64	84	118						266
1917-1918			105	52	185						342
1918-1919			94	52	177						323
1919-1920			98	52	188						338
1920-1921			145		200						345
1921-1922			148		214						362
1922-1923			135		199						334
1923-1924			107		158						265
뤼카	1929-1930	60		102					162		

64)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수원교구 50년사 자료집 4』에서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미리내	뤼카	1930-1931	59		104					163
		1931-1932	60		99					159
	최문식	1932-1933	43		101					144
		1933	51		98					149
		1934	60		111					171
		1935	54		107					161
		1936	61		74					135

◎ 교세통계표에 상이하게 나타난 공소 이름 ◎

더우골 공소	안터 공소	Te oui kol (더우골), Te oue kol(더우골), Te ou kol(더우골)1, Te ou kol 1 (더우골)1, Te eui kol(더우골), Te eui kol anhte(더우골 안터), An hteui(더우골 안터), An the(더우골 안터)
	새터 공소	Sai the(더우골)새터, Te ou kol(더우골)2, Sai the(더우골 새터), Te eui kol(더우골) 2, Te eui kol saihthe(더우골 새터), Sai htue(더우골 새터), Sai the(더우골 새터)
사리틱 공소	Sa ri kol(사리골)[사리티], Sa ri teui(사리티), Sa ri thi(사리티), Sari hteui(사리티), Sa ri hteui 1(사리티 1), Sa ri hteui 2(사리티 2), Sye ri(서리)	
조이골 공소	Tjyo hi kol(조이골), Tyo eui kol(조이골)	
석바탕이 공소	Syek pa tang(석바탕이), Syek pa tang l(석바탕이)	
승방틀 공소	Seung pang teul(승방틀)	

* 교세통계표는 재임하던 신부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공소를 관할하는 본당 신부에 의해서 같은 공소명을 유사한 라틴어로 표기한 것으로 여겨지며, 같은 신부가 다르게도 표기하였다.

이처럼 행정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서리에 많은 공소가 있었다는 것은 지역의 곳곳에 신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서리 지역 공소의 특징은 작은 지역에 많은 공소가 있었다는 점 외에도 같은 마을(더우골과 사리틱)에 각 2개의 공소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즉 더우골에는 ‘더우골 공소’라고 불려진 ‘안터 공소’가 1885년 가장 먼저 신설되고, 이웃한 ‘새터’에 1887년 신설되어 1920년 폐쇄까지 33년간 공소가 운영되었다. 사리틱에는 1888년 갖등이 본당이 설정된 이후 1892년에 신설된 ‘사리틱 공소’와 미리내 본당이 설정된 1896년에 신설되어 사리틱 공소 강당이 건축된 1898년까지 운영된 ‘사리틱2 공소’가 있었다. 그밖에도 1893년 조이골, 1894년 석바탕이 공소가 신설되었고, 1898년 신설된 승방틀 공소는 1913년까지 약 16년간 간헐적으로 4차례 공소와 신자 현황이 보고되지만, 서리 지역 다른 공소 신자 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신자가 생겨난 공소이다. 이러한 점은 용인 서리 지역에 신자

가 그만큼 많았고 활발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2) 용인 서리 지역의 공소 신자 현황

용인 서리는 용인현 상동촌면에 속해 있던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에 표시되지 않았으나, 1912년 발간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1840년 이후 신앙생활을 위해 용인의 산곡(山谷)으로 피신하게 된 천주교 신자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은 역사적으로 1876년부터 1886년까지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으며 점차 문호를 개방하면서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영향은 <표-5>의 용인 서리 지역 신자 증가와 공소 신설의 현상에도 나타난다. 서리 지역의 천주교는 미리내 본당이 신설되어 강도영 신부가 재임한 1896~1924년까지 서리 지역 전체 공소의 신자 수가 매년 260명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인다. 미리내 본당이 설정된 2년 후인 1898년 사리티 공소에 강당이 신축되면서 이를 구심점으로 활발한 전교가 이루어져 매년 300~400명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였다. 특히 1912~1913년에는 신자 수가 404명으로 가장 많은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1885년 45명으로 시작된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용인 서리 지역 공소는 1920년부터 더우골 안터 공소와 사리티 공소 두 곳으로 재편되면서 1923~1924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신자 감소 현상을 보인다. 1922~1923년 334명, 1923~1924년 265명이던 것이 몇 년 간의 자료는 없지만 1929~1930년 162명으로 100여 명이 감소한다. 이러한 신자 감소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서리 지역을 관할 하던 미리내 본당의 강도영 신부의 몇몇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1921년 12월 28일 뒤틀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인들의 개종은 별로 없었고, 개종자보다는 냉담자가 더 많았습니다. 교우 화전민들은 보

통 담배를 경작하는데 담뱃값이 바닥으로 떨어져 매우 곤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담배를 전매 사업으로 만든 후에 담배 시세가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빚진 돈을 갚을 길이 전혀 없게 되자 채권자들의 독촉이 극심하여, 어떤 교우들은 실망에 빠져서 판공성사조차 받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교우들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⁶⁵⁾

강도영 신부의 편지에서 드러난 교우촌의 궁핍한 생활은 1910~193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는 일제가 1910년 이후 실시한 토지조사령, 인삼·담배·소금에 대한 전매제, 산미증식계획 등과 연계된 것이다.⁶⁶⁾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 강도영 신부가 1922년 9월 19일 뫼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 특히 산골인 용인 지역의 농사가 큰 수해를 입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공소들, 예컨대 은이와 사리티 공소는 추수할 것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시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밭들이 유실되었습니다. ... 겨울과 내년 봄에는 극도의 기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긴장한 남자들은 거의 모두, 고향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타지방으로 떠났습니다.”⁶⁷⁾라고 전한다.

65) 강도영 신부, 위의 책, 206~207쪽.

66) 일제는 1910년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을 1912년 토지조사령의 공포를 통해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이 누리왔던 경작권을 부정하여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면서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 많아졌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전매국관제'를 통해 홍삼과 소금, 1921년 4월 1일 '조선 담배 전매령(專賣令)'을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담배 전매를 시행하여 인삼·담배·소금 등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장악하였다.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1920~25년 '산미증식계획', 1926~34년 '산미증식갱신계획', 1940~45년 '조선증미계획' 등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외국의 값싼 쌀이나 잡곡으로 대체하였다. 농민들의 반강제 수리조합 가입 등으로 농민들은 수리조합 비 납부를 위해 토지 담보의 빚과 이를 갚지 못해 토지를 파는 경우도 생겨났다. 따라서 산골 교우촌에서 화전을 일구어 밭농사와 담배 농사를 짓거나 용기를 구워 팔던 교우촌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한 신앙공동체 신자들의 일부는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일본으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거나, 만주로 넘어가 새로운 농토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67) 강도영 신부, 위의 책, 223쪽.

이어서 1922년 10월 1일 수신처가 미상인 편지에서 “... 용인 지역에는 구교우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이들이 박해를 겪은 사람들이고 적지 않은 이들은 치명자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산중에서 화전을 경작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 금년 8월 4, 5, 6일에 걸쳐 폭우가 쏟아져 다른 지방보다 더욱 심하게 농작물과 전답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은이, 사리티, 떡뱅이, 터골, 별미 공소에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다.”⁶⁸⁾라며 당시 홍수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경제 수탈로 곤궁한 생활이 이어졌고, 1922년 7월과 8월의 한 달여간 내린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골 지역에서 화전을 경작하며 가난하게 모여 살던 박해자와 치명자의 후손이었던 용인 서리 지역 신자들은 전답이 파괴되어 먹을 것이 없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일본으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거나, 만주로 넘어가 새로운 농토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농촌 지역 신자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용인 서리 지역 신자가 1912~1913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여 1929년부터 현격히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도시에 해당하는 수원과 안성의 신자는 <표-6>의 수원과 안성의 연도별 신자 현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수원과 안성의 신자 증가는 도시 자체의 복음화를 통한 신자 증가도 있겠지만,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하였던 농촌 지역의 신자들이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과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생계를 위한 활로를 찾아 이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8) 위의 책, 225쪽.

〈표-6〉 수원과 안성의 연도별 신자 현황⁶⁹⁾

연도	지역	수원					안성	
		복수동	오목내 (웅기점)	오목내	고색리	자루목 (호매실)		합계
1900-1901		11					11	24
1901-1902		15					15	17
1902-1903		12					12	25
1903-1904		13					13	28
1909-1910		59					59	71
1910-1911		59					59	147
1911-1912		93					93	96
1912-1913		72					72	109
1913-1914		70					70	127
1914-1915		92					92	106
1915-1916		90					90	143
1916-1917		102					102	144
1917-1918		105		64		49	218	160
1918-1919		58	62	42		42	204	153
1919-1920		82	89	41		44	256	170
1920-1921		52	118	45		50	265	184
1921-1922		75	122	50		50	297	196
1922-1923		76	43	73		53	245	179
1923-1924		106	80	53		56	295	206
1929-1930		125	71		52	62	310	343
1930-1931		261	100		72	72	505	302
1931-1932		301	102		69	69	541	360
1932-1933		315	53	62	×	71	501	345
1933		315	117		72	75	579	329
1934		327	65	61	90	83	626	361
1935		383	133		102	115	733	377
1936		357	75	66	116	154	768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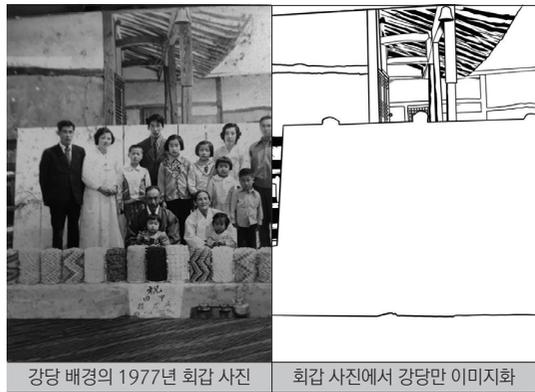
69)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수원교구 50년사 자료집 4』에서 수원과 안성 지역의 신자 현황을 정리하였다.

IV. 사리티 공소의 강당

1. 1898년 강당 건축

사리티 공소 강당은 미리내 본당이 신설된 1896년보다 2년 늦은 1898년 공소의 초대 회장인 조면(바오로)이 서리 지역의 증가하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위해 자신의 집 앞마당의 빈터(현재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로 208)에 신축하였고 전한다.

초가로 신축한 사리티 공소 강당의 건축 형태와 구조는 <그림-3>의 ‘1898년 건축된 초가(草家) 강당 배경의 1977년 회갑 사진에 나타난 모습이다. 이 사진의 이미지화를 바탕으로 <그림-4>의 ‘1898년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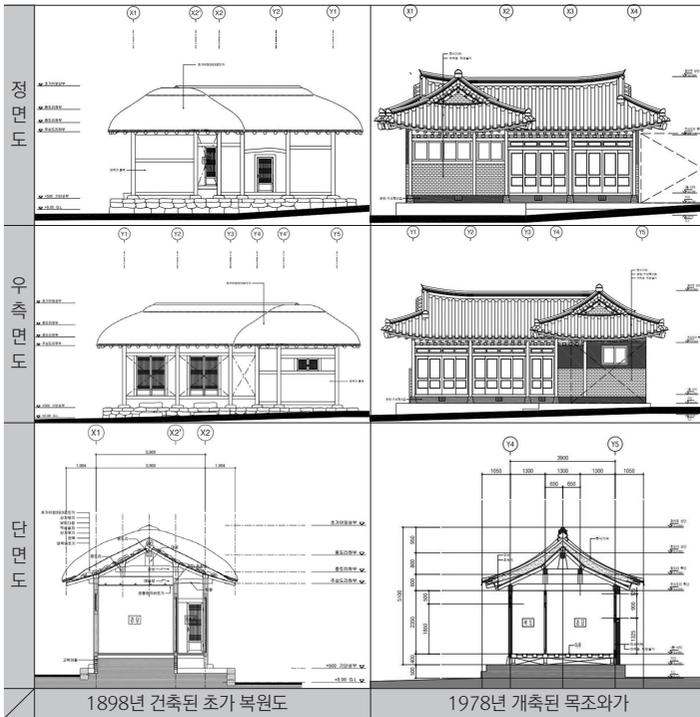


<그림-3> 1898년 건축된 초가(草家) 강당 배경의 1977년 회갑 사진과 이미지화

가 복원도’를 만들 수 있었다. 사리티 공소 강당의 건축 양식은 1898년에 전통적인 민가 한옥 방식의 목구조와 흙벽에 짚으로 지붕을 얹은 초가(草家)다. 대부분 마룻바닥이지만 1칸만 온돌방이며 텃마루가 딸린 6칸짜리 ‘ㄱ자형’으로 되었다. 강당의 남동쪽에 마당이 있으며, 외부에서 마당으로 드나드는 입구가 되는 남쪽의 지형이 낮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3>의 병풍이 설치된 쪽에 여러 기단을 설치해 마당에서 강당으로 편

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4〉의 정면도와 우측면도, 〈그림-7〉의 평면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형’으로 서로 마주 보이는 중심축에 제대를 설치하고,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제대를 바라보는 양쪽 부분의 3칸 쪽에 남자, 2칸 쪽에 여자의 자리로 사용했다. 강당의 내부는 공소를 방문하는 신부가 미사를 위한 제의실이나 고해소로 사용할 수 있는 1칸의 온돌방이 있었으나 그 외는 마룻바닥이 설치되었고, 격자무늬살의 양개문 2개와 홀문 2개로 출입하였으며, 정면도의 우측 나지막한 문이 설치된 곳에 온돌방이 있었다. 4곳의 출입문 밖에는 길게 설치된 툇마루를 통해 외부 마당으로 동선이 연결하는 출입의 편의성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4〉 사리티 공소 강당의 1898년 건축된 초기 복원도 및 1978년 개축된 목조와가

사리티 공소 강당을 건축한 4년 후인 1902년 11월 사목 방문한 뒤텔 주교는 “...네 개의 작은 신자 마을들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작은 경당을 거기에 지었다. ... 남자들은 3칸 ... 여자들은 2칸을 사용 ... 견진자는 40명가량. ... 내일 떠나기 위해 사리티 교우들의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다.”⁷⁰⁾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목 방문 기간 중인 11월 8일 “우리는 오산소라는 첫 번째 마을 앞을 지나, 덕골⁷¹⁾ 골짜기를 거쳐 사기막골⁷²⁾이라는 교우촌이 있는 골짜기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는 신자들이 많았다.”⁷³⁾ 다음 날인 11월 9일 “헌당(獻堂) 미사를 지냈다. ... 견진자는 25명.” 또 뒤텔 주교는 1910년 11월 12일 원주 대안리 공소를 방문해서 “성당에는 드브레 신부가 만든 신부 방이 딸려 있다. 축성해 달라고 했다. 그것은 진짜 성당이기에 성당 축성 예절로 축성했다.”⁷⁴⁾라고 했다. 대안리 공소는 건립 초기 4칸으로 형성되었으나 6칸으로 변경된 후에 축성을 받았다. 이처럼 뒤텔 주교가 방문한 사기막골 공소나 대안리 공소는 사리티 공소와 비교하면 공소의 규모나 견진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헌당 미사’나 ‘축성 예절’이 있었으나, 사리티 공소에서는 견진성사를 행하며 하루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옥의 6칸으로 건축된 사리티 공소 강당의 축성에 관한 기록이 없다.

공소 강당의 축성과 관련한 기준에 관해서 “주교관(主教冠)과 제의, 목장을 갖추고 있는 주교가 전례를 행할 때 충분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에 영향을 받아서 대안리 공소 강당은 “오량집은 장연(長椽)이 있는 측면보다 단연(短椽)이 있는 중앙 부분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70) 『뒤텔 주교 일기 3』, 184~185쪽.

71) 위의 책, 181쪽의 본문 각주(121)에 ‘현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오산소와 가까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에 있다.

72) 위의 책, 181쪽의 본문 각주(122)에 ‘현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오산소와 가까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에 있다.

73) 위의 책, 181쪽.

74) 『뒤텔 주교 일기 4』, 498쪽. ; 김중기·박희용·최종철·홍대형, 「천주교 원주 대안리 공소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3, 2008.3, 141쪽.

제단 중앙에서 행해지는 주교의 전례 행위를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성하였다⁷⁵⁾라는 관점의 연구도 있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리티 공소 강당은 목조 초가로서 단면의 천장이 설치되어 높지 않기 때문에 주교가 전례 거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축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1978년 강당 개축

사리티 공소 강당을 개축⁷⁶⁾하게 된 이유는 1898년 초가(草家)로 건축되어 80여 년을 지내면서 기초가 약해지고 지붕에 비가 새고 벽이 허물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당시 사리티 공소 회장이었던 임창순(분도)은 용인 본당의 장덕호 신부와 의

논하여 강당의 옛 모습을 살려 영원히 조상들의 얼을 유지 보존토록 결정하였다. 강당 복원에는 1년여의 공사 기간 750여 명의 인력과 450여 만원의 비용을 들였으며, 사리티 공소 교우들의 피나는 협력을 얻어 연관이 있는 사



〈그림-5〉 1978년 공소 강당 개축 축복식

람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게 되었는데, 서울 종로에서 철거된 기와를 재활용하기도 했으며, 종탑에는 부평성당 김진용이 기증한 종이 봉헌되었다. 이로써 개항기 교회의 모습으로 남녀 신자 자리를 구분하여 미사에 참여하여 서로를 볼 수 없게 지어진 구조의 기념비적

75) 김중기·박희용·최종철·홍대형, 위의 논문, 147쪽.

76)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다.

건축물로 1977년 10월 목조와가(木造瓦家)로 60.48㎡(18.4평)⁷⁷⁾을 옛 모습과 똑같은 구조로 복원하였다. 개축된 사리티 공소 강당은 1978년 4월 23일 정덕진 부주교와 장덕호 본당 신부를 비롯한 7명의 신부와 여러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거행하였다(그림-5).

사리티 공소 강당은 1978년에 개축하면서 1898년 신축되었던 초가와 같은 위치에 같은 규모로 ‘ㄱ자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목조와가(木造瓦家), 정면 4칸과 측면 3칸 규모, 5량 구조,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건축하였다. 사리티 공소 강당을 개축하면서 초가와 같은 위치와 규모는 물론이고 초가의 서까래였던 부재 2개를 <그림-6>의 온돌방 서까래 가운데 다른 부재와 다르게 검게 보이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개축에 참여하였던 권혁진(리카르도) 봉숙중(아가다) 부부가 2020년 3월 9일 증언하였다.



<그림-6> 사리티 공소 강당 서까래에 사용한 초가(草家) 서까래

강당은 별이 잘 드는 동남쪽에 마당을 배치하여 마당과 접하도록 뒷마루가 놓여 있으며, 실내와 뒷마루 사이에는 격자 무늬살의 여닫이 접이

77) 재 건물을 2018년 측량하여 건평이 60.84㎡(18.4평)임을 확인하였다. 사리티 공소 강당의 면적에 관해 용인성당의 기록에 의하면 김효신 신부 재임(1961~1972년) 기간의 용인성당 재산 현황에는 건평 30평의 초가, 김영옥 신부 재임(1979~1985년) 기간의 부동산 현황에는 건평 19.5평의 목조와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면적의 차이는 과거에 몇 칸의 집으로 규모를 산정하거나 줄자를 이용해 면적을 산출하였으나, 오늘날은 위성을 이용한 측량 방법으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사리티 공소 강당은 현재 정부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

문⁷⁸⁾이 ㄱ자형을 따라 전면에 설치되었고, 여닫이 접이문의 상부에 미닫이 창호들이 상부 공기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과 상부 창호는 온돌방과 연결되는 부분에도 같은 형태로 되었다. 마당으로 향하는 부위에 설치된 툇마루 끝부분에는 유리가 달린 미닫이문이 ㄱ자형을 따라 전면에 설치되어 <그림-7>의 평면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당의 전례 공간 사이에 설치된 접이문을 열면 실내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북쪽과 서쪽 면의 내부는 나무 구조체가 보이게 되었으나, 외부는 창호와 마룻바닥 통풍을 위한 최소한의 개구부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면은 적벽돌과 시멘트 위 페인트 등으로 벽면을 두 겹게 마감함으로써 북서쪽의 냉기와 지는 별의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소 강당에 맞물려 외부에 별도로 가변식 화장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7> 사리티 공소 강당의 평면도와 내외부 사진

사리티 공소 강당은 용인 서리 지역 신앙공동체의 생활을 위한 중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건축적으로는 1890년대 사회상을 반영해 ㄱ자 형태를 간직한 의미 있는 현존하는 강당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서리 지역의 이농(離農) 현상으로 신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현재는 공

78) 사리티 공소에 설치된 접이식 문은 한옥의 장지문(障紙門)과 같이 여러 칸으로 된 방의 중간에 설치하여 때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여 따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며, 판공 등의 경우에 지역 신자가 모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사리티 공소 강당은 관할하는 천리 본당과 거리가 가까워 신자들이 본당으로 다니면서 공소의 역할은 없어졌으나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건물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사리티 공소 강당의 역사적 의미

(1) 사리티 공소 강당의 특징

한국 천주교는 박해 이후 개항기를 거치면서 지어진 한옥식 성당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생활공간과 전례공간을 구분하였다. 둘째, 성당은 ㄱ자형이나 +자형으로 배치를 하기도 했으나 전례공간은 대부분 장방형이다. 셋째, 온돌보다 마룻바닥을 많이 채용하였다. 넷째, 당시 유교적인 풍토에서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動席)이라 하여 남녀 간은 늙어서도 서로 인사는 고사하고 한자리에 동석하는 것조차 금기시하였다.

공소 강당은 성당의 특징 가운데 상주하는 이를 위한 생활공간이 없을 뿐이지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건축되었다. 한옥식 성당은 대지 안에서 생활공간과 전례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ㄱ자형이나 +자형 등으로 배치되지만, 그 중 전례공간은 장방형으로 건축되었다. 한옥형 공소 강당은 성당의 특징이 반영되지만 생활공간을 제외한 전례를 위해 필요한 규모로 건축되기 때문에 대부분 장방형 평면이다.

개항기에 신앙생활을 위해 지어진 <그림-8>의 양촌 공소, 대안리 공소, 구룡리 공소, <그림-11>의 신성 공소, 어은 공소, 수분 공소, 상흥리 공소 등과 <그림-9>의 약현성당, 되재성당, 나바위성당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장방형으로 건축되었다. 이처럼 장방형으로 건축된 공소와 성당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을 위해 인위적으로 칸막이 등을 설치해 남녀의 자리

가 나뉘도록 하였다.

외부				
내부				
구조	한옥	한옥	한옥	한옥
형태	장방형	ㄱ자형	장방형	장방형
규모(칸)	4×2	6×1	4×2	5×2
비고	내부 중앙 칸막이	ㄱ자형 양쪽 구분	내부 중앙 칸막이	내부 중앙 칸막이
	양춘공소(1892년)	사리퇴공소(1898년)	대안리공소(1901~1906년)	구룡리공소(1910년)

〈그림-8〉 한국 개항기의 공소 강당

남녀 자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공간이 넓은 성당은 〈그림-9〉의 되재성당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대를 바라보며 가운데 부분에 나무 칸막이를 세웠고, 공간이 좁은 공소는 천이나 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칸막이에 대해서 1892년 축성을 앞두고 약현성당을 방문한 뮌텔 주교는 “두 세 신부는 방금 종현으로 떠난 참이었다. 성당은 곧 완공될 것이다. 어쨌든 다음 주일에 낙성식이 거행된다. 남자석과 여자석 사이에 가운데를 갈라놓으니,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된다!”⁷⁹⁾라고 했다. 이는 남녀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성당 가운데 놓였던 칸막이가 전례 공간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공간 구분은 약현성당만이 아니라, 이후에 지어진 되재성당·금사리성당·나바위성당도 〈그림-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당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들을 세워 보를 받치는데, 이 기둥들에 칸막이를 세워 남녀 자리를 구분하였다.

79) 『뮌텔 주교 일기 2』, 132쪽.



〈그림-9〉 한국 개항기 성당 내부 칸막이

사리티 공소 강당의 공간과 구조 그리고 용도에 대해 뫼텔 주교는 1902년 11월 사목 방문 기록에서 “... 같이 사용할 작은 경당을 거기에 지었다. 그것은 ㄱ자형으로 지어졌는데, 남자들은 3칸짜리 한쪽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2칸을 사용하고 있다. 성당으로 쓰이는 방은 양쪽으로 다 통해 있다.”⁸⁰⁾라고 하였다. 뫼텔 주교의 기록에서 사리티 공소 강당은 시대적 상황인 남녀유별을 반영하기 위해 ㄱ자로 꺾이는 부분 1칸에 제대를 설치하고 오른편 3칸은 남자, 왼쪽 2칸은 여자가 자리하여 서로 볼 수 없는 구조로 배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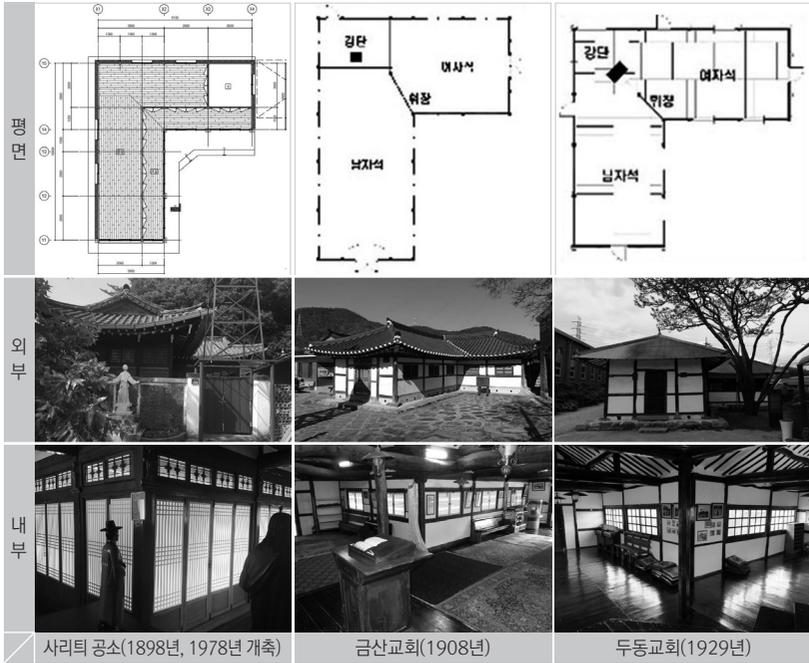
사리티 공소 강당은 개항기 성당이나 공소 강당이 장방형으로 건축되어 남녀 자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였던 것과 다르게 ‘ㄱ자형’으로 건축함으로써 구분하는 방법을 달리하였다. 조선 시대 민가가 ㄱ자형인 경우가 많아서 사리티 공소 강당을 같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가로 사용하던 것을 공소로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면서 민가보다 넓게 사용하기 위해 내부 칸을 막지 않았고, 바닥은 필요시 난방을 할 수 있는 1칸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마룻바닥으로 하였으며, 민가의 ㄱ자형의 건축적 특징을 남녀 자리 구분에 적용한 것이다.

사리티 공소 강당은 툇마루의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을 열어 마당을 향해 개방된 공간을 펼칠 수 있으면서 전례를 위해 ㄱ자형의 중심점에 제단을 두어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봉헌 제단을 향함으로써 ‘열림(개

80) 『뫼텔 주교 일기 3』, 184~185쪽.

방)’의 의미가 있고, 뒷마루 공간으로 외부와 영역을 나누면서도 남녀 자리를 공간적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달힘(폐쇄)’의 의미를 담은 ‘ㄱ자형’ 평면으로 건축되었다. 개항기 성당이나 공소 강당의 종교 건축이 대부분 장방형인데, 사리티 공소 강당은 거의 유일하게 ‘ㄱ자형’으로 건축되어 ‘열림과 달힘’이라는 건축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사리티 공소 강당이 건축된 이후 80년을 지내면서 1978년 목조와가로 개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1898년 최초 지어진 강당의 초가와 같은 위치에 같은 규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항기에 ‘ㄱ자형’으로 지어진 현존하는 종교 건축으로 사리티 공소 강당 외에도, 금산교회(1908년)와 두동교회(1929)를 꼽을 수 있다. 사리티 공소 강당이나 금산교회, 두동교회는 <그림-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드러나는 ‘ㄱ자형’의 외부의 형태는 내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양쪽이 마주하는 부분에 제단을 설치하여 남녀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다. 이 건물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에 일반적인 민가와 비슷한 외형의 ㄱ자형을 하고 있으나 평면형태가 차별화되어 있다. 둘째, 공통으로 제단을 바라보며 남북축을 이루는 왼쪽에 남자석, 동서축을 이루는 오른쪽에 여자석을 두고 있다. 셋째, 사리티 공소는 출입을 위한 방식이 뒷마루라는 또 다른 공간을 통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 평면 공간이 좁고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으나, 금산교회와 두동교회는 건물 벽에 설치된 문을 이용해 바로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내부 평면 공간이 넓다. 넷째, 제단을 바라보며 남녀 자리를 구분하면서 금산교회와 두동교회는 교회 내부 비교적 넓어서 강단 앞부분에서 남녀 자리가 마주칠 수 있어서 휘장을 설치해 나누었으나, 사리티 공소는 내부 폭이 좁아서 뒷마루로 나가는 여닫이 접이문이 ㄱ자로 꺾이는 부분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제대를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남녀 자리를 구분하였었다.



〈그림-10〉 개항기 ‘거자형’ 공소와 교회

(2) 신앙의 유산으로 보존 활용

수원교구의 공소는 교구가 설정된 1963년에 202개로 시작되어 점차 많아져 1972년에 이르러 388개로 가장 많았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줄기 시작하여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1992년에 166개, 2019년에는 16개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교통의 편리성 증가로 공소가 본당으로 편입되고 공소 강당도 해체되면서 수원교구에는 현재 30여 개의 강당이 남아 있다. 그나마 많은 강당은 공소로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건물만 남아 있는데 사리티 공소 강당도 그중 하나다.

사리티 공소 강당은 용인 서리 지역에서 신앙인의 보고(寶庫)로 자리 매김하며 순교 신앙인의 얼을 이어받아 지역 복음화에 매진하는 중심 역

할을 해왔다. 비록 건축된 지 80여 년이 지난 1978년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항기 종교 건축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ㄱ자형’으로 건축된 사리티 공소 강당이 지니는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초기 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신앙을 전하는 중요한 산실이 되어 후대에 가르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값진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다.

사리티 공소 강당의 보존과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 강당에 대한 유지관리와 인접한 대지 확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용인 서리 지역의 신앙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용인 서리 지역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 왔던 건축물로서 사리티 공소 강당을 보존과 활용하기 위해 개항기에 건축된 공소 가운데 근대 건축 문화재로 등록된 <그림-11>의 공소와 같이 그 가치와 의미를 더욱 발굴 연구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도록 하여 신앙인만이 아니라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선조 신앙의 삶을 알리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다.

외부				
내부				
종목	문화재자료 제180호	등록문화재 제28호	등록문화재 제189호	등록문화재 제338호
건립년도	1903	1910	1913	1919
규모(칸)	3×4	4×6	3×6	3×7
	신성공소	어은공소	수분공소	상흥리공소

<그림-11> 근대 건축 문화재 한옥 공소

[Provider: earticle] Download by IP 222.112.124.74 at Sunday, June 20, 2021 9:44 PM

V. 결론

한국 천주교에서 용인은 박해 시기 신자들이 산곡(山谷)을 찾아 교우촌을 형성하였던 지역으로 은이 공소, 굴암 공소, 고초골 공소와 인물로 김대건 신부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와 더불어 이웃해 살았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 용인 서리 지역이다. 그나마 사리티는 1898년 건축된 사리티 공소 강당이 있어서 알려졌으나, 이를 중심으로 사방 약 2.5km에 달하는 서리 지역에 사리티 공소 보다 먼저 형성된 더우골의 안터와 새터 공소를 비롯해 6개의 공소와 신앙공동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기반이 되었던 용인 서리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뿌리가 언제 누구에 의해 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리 지역은 ‘사기막골’ 지명, 상반의 가마터 ‘사기둥치’, ‘고려백자요지’ 등을 통해 드러나듯이 항아리를 만들고 솥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서리 지역은 박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천주교 신자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용인 지역에는 남한강 주변에 살던 양근 권철신 일가 등의 천주교 신자가 1791년, 1795년, 1801년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용인 지역으로도 이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안나의 시복재판 증언에 나오는 남편 박후재 가족이나 신태보의 「옥중수기」에 나오는 세 집안은 1799~1801년 용인에 살았으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용인 서리 지역에 신앙인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순교자 정덕구(야고보)는 1844년

서리 지역 ‘더우골’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801년 권철신의 순교 이후 살아남은 그의 일가가 양근에서 용문 덕동으로 피난했고, 그 중 권상문의 차남인 권탁이 1839년 기해박해로 순교하면서 아들 권공과 그 가족이 1840년경 용인 사리퇴로 이주해 정착한 것으로 여겨진다. 순교자 윤자호(바오로)와 정필립보 등은 더우골에서 살았거나 살다 타지로 이주하였으나 1866년 병인박해로 순교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이후 이미 사리퇴에 정착해 사는 권공의 사촌으로서 권일신의 둘째 아들인 권상벽의 아들 권위와 그 가족, 낙향한 충주 출신의 임혁준(요셉), 진천에서 박해를 피해온 조면(바오로) 일가 등이 사리퇴로 이주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

넷째, 그들로 시작된 서리 지역의 신앙은 1885년에 생긴 더우골 안터 공소가 발판이 되어 새터, 사리퇴, 조이골, 석바탕이, 승방뜰 등의 7개 공소가 있었는데 가장 많았던 때는 동시에 6개가 있었고, 신자가 가장 많았던 1912~1913년에 404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신앙공동체가 되었다. 1898년 사리퇴 공소 강당이 건축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더 많은 전교가 이루어지는 구심점이 되었다.

다섯째, 개항기 종교 건축은 일반적으로 장방형으로 지어 남녀유별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자리 구분을 위해 중앙에 벽이나 장막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898년 흙벽 초가로 건축된 사리퇴 공소 강당은 인위적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당시 민가의 형태로 건축하면서 건축의 형태적 특성인 ‘열림과 닫힘(개방과 폐쇄)’이 적용될 수 있는 ‘ㄱ자형’ 평면으로 건축하였다. 사리퇴 공소 강당은 ‘ㄱ자형’ 평면으로 건축함으로써 제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는 서로 다른 방향에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구분되도록 배치한 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특히 80년이 된 흙벽 초가를 1978년 개축하면서도 초기 강당이 지녔던 남다른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초가가 있던 자리에 같은 규모와 같은 ‘ㄱ자형’ 형태를 유지한 채, 목조와가로 건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리 지역의 신앙인은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도시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줄었고, 그나마 교통의 편의함으로 서리 지역을 관할하는 천리 본당으로 다니고 있다. 따라서 사리퇴 공소 강당은 신앙공동체의 구심점을 하였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용인 서리 지역에 살았던 초기 신자들이 머물던 사리퇴 공소 강당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신앙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공동체의 정신을 되새기고, 박해를 피해 사리퇴와 더우골에 살았던 순교자 후손들의 신앙 가치를 드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BCK,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년.
- 강도영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강도영 마르코 신부 서한집』, 천주교 수원교구 미리내성지, 2016.
- 김문수·홍승재, 「대전교구 공소의 변천과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5, 1997.5.
- 김종기·박희용·최종철·홍대형, 「천주교 원주 대안리 공소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3, 2008.3.
- 뫼텔 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 주교 일기 1~8』,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2008.
- 베르뇌 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베르뇌 주교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 샤를르 달레, 안은영·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중·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1981.
- 수원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구 50년사- I .교구사』, 천주교 수원교구, 2017.
- 수원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수원교구 교세통계표-수원교구 50년사 자료집 4』, 천주교 수원교구, 2019.
-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신앙 선조』, 천주교 수원교구, 2011.
-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2』, 천주교 수원교구, 2011.
- 앵베르 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앵베르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1.
- 여진천, 「권철신·권일신 후손들의 천주신앙」, 『시복시성을 위한 심포지엄』, 천

- 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1.
- 여진천,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 특성」, 『교회사 연구』 4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내고장 용인 地名·地誌』, 용인시, 2001.
-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이동면지』, 용인시, 2007.
- 용인성당50년사편찬위원회, 『용인성당 50년사』, 용인성당, 2013.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사총서6』, 용인시, 2000.
- 이석원, 「용인 천주교 유적의 가치와 의미」, 『2018 용인 천주교 유적 학술대회 용인 천주교 유적의 가치와 의미』, 용인시, 2018.
- 이석원, 「용인지역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 이원희, 「‘포도청등록’에 나타난 병인박해기 강원지역 인물 고찰」, 부산교회사연구소 학술연구발표 제78회, 2013.3.
- 임성빈, 「신유박해 이후 교회 재건기의 지도 권기인 요한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8,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
- 정약용, 「녹암 권철신 묘지명」, 『다산시문집』
- 조성희 편저, 『용인천주교회사』, 용인천주교회사편찬위원회, 1981.
- 주교회의 시성시복주교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천주교 수원교구 시성시복추진위원회,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후손들의 천주 신앙』, 시성시복을 위한 심포지엄, 2011.
- 천주교 수원교구 시성시복추진위원회,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1~2』, 하상출판사, 2011.
- 최종인, 「천주교 성당 건축지침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4.
- 페레올 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atholicism and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Gong-so) in the Seori area, Yongin

Choi, Joong-In

Priest of Ilwol Parish, Catholic Diocese of Suwon

Ph.D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early days of Korean Catholic Church began with various persecution and the process of evacuating it, and its after effect was a major influence factor in determining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tholic community. It is meaningful to study when and by whom Catholicism, which is related to this journey of persecution and evacuation, was introduced to the Seo-ri area of Yongin. This study began with the search for a connection between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which was built in 1898 among the few existing ones in the Diocese of Suwon and renovated in 1978, and the Catholic mission in the Seo-ri area of Yongin.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atholic mission in the Seo-ri area of Yongin, the growth of Catholic communities, and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The Seo-ri area of Yongin was geographically surrounded by mountains and blocked from the outside. It is geographically located on the road leading to Yongin, Icheon, Hwaseong, Anseong, Jincheon, etc. Thus, it was suitable

for believers who had to live out of persecution to cultivate rice and crops in the agricultural farms through the water flowing and to make kilns and charcoal, or live in slash-and-burn field.

In the Seo-ri area of Yongin, Jeong Deok-gu (Jacobus) who was born in Teouikol in 1844, and his family, and Kwon Geung who was presumed to have moved to Sarihteui, and his family, and Yoon Ja-ho (Paulus) and Jeong Pilippo, martyrs of the 1866 persecution, who moved to Teouikol, and after 1866, Kwon Wi and his family, and Lim Hyeok-jun (Josephus) and Jo Myun (Paulus) took root of Catholic faith. The belief in the Seo-ri area, which began with them, spreaded further when Anthe secondary station in Teouikol was built in 1885, which was a stepping stone to the seven Secondary Station including Saithe, Sarihteui, TJyohigol, Syekpatangi, and Seungpangteul. There were six at the same time when there were the most. Between 1912 and 1913, when there were the most believers, it became an active Catholic community with the number of 404. In 1898, the construction of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made the Seo-ri area the center of spreading Catholicism.

The Secondary Station in the Seo-ri area of Yongin, has been reorganized into two places since 1920, the Anthe in Teouikol and Sarihteui, showing a clear decrease in believers since 1923-1924. The number of believers decreased to 334 in 1922-1923, 162 in 1929-1930 and 135 in 1936. This decrease was followed by economic exploitation such as land investigation ordinances, proliferation of rice products, monopoly for ginseng, tobacco, and salt, which were implemented by Japan since 1910, and severe damage caused by floods in July and August 1922. Believers in the Seo-ri area of Yongin, moved to a new site for a living due to the destruction of field and paddies and economic difficulties, resulting in a sharp decline in believers.

The Catholic architecture was generally rectangular shape during the harbor-opening period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 Catholic faith began to flourish after the persecution. At that time,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men and women could not sit side by side. For that reason the churches and secondary station chapels were divided into two areas with walls or curtains in the center. However,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was constructed in 1898 as a mud-wall and a straw-roofed house that was a '⌋-shape' in the form of a private house, and the space was divided into two, for men and women.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is meaningful and valuable in that it is constructed in a '⌋-shape' plane, so that the positions of men and women are separated in different directions, which are divided into two sides from the altar. Although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has the form of 'closed' to divide the space between men and wome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built in a "⌋-shape" plane to have an 'open' position through the direction toward the altar where the sacrifice to God is dedicated in divided spaces. In particular, when it was reconstructed, the 80-year-old mud-wall and straw-roofed chapel was constructed with a wood-roofed house while maintaining the same place, size, and '⌋-shape' that the early hall had to preserve its characteristics.

In the Seo-ri area of Yongin, the number of Catholics is decreasing due to urbanization and aging, and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chapel is disappearing. It is needed to preserve and utilize the Sarihteui secondary station chapel in the Seo-ri of Yongin where early Korean Catholics lived so that the spirit of the Catholic community shown by the ancestors of faith should be reflected and the value of descendants of the Korean martyrs who lived in Sarihteui and Teouikol should be raised.

Keywords : Yongin, Seo-ri, Sarihteui, Teouikol, Secondary Station(Gong-so), Chapel, ‘ㄱ-Shape’ Secondary Station.

투고일 : 2021. 2.20

심사일 : 2021. 3. 7

게재확정일 : 2021. 3.18